

“탄탄한 교리로 무장... 나라도 지킬 터”

호국 장영사, 나라나 축제서 최우수 부대상 수상

전북지역 작은 군부대 불자장병들이 탄탄한 교리무장으로 나라나 불교문화축제 교리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불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 불자 장병들. 70명의 불자 장병들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4회 나라나 축제에 참가해 이 가운데 17명이 단체상(우수상)과 개인 최우수상(유성훈 일병) 등을 수상했다.

장병들이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매주 일요일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교리공부를 해온 덕분이다.

호국 장영사는 매주 법회 때마다 자체 제작한 교리퀴즈 문답집을 만들어 간단한 교리 퀴즈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힌 병사에게는 간식이나 선물을 주면서 장병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잘못된 답을 말한 병사에게도 상응하는 선물을 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1년에 초파일과 가을에 2회 도전 골든벨 형식의 교리 퀴즈대회를 열어 병사들의 교리실력을 점검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와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상품으로 걸어 병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부대에서도 이번 대회 입상자 전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정도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호국 장영사의 가장 큰 특징은 범회 참석인원이 항상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타 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주 법회 때마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이성강 포

일요법회서 교리 퀴즈 열여
골든벨 열고 포상 휴가 줘
장병·지역 스님 한마음 활동
군포교 모범사례도 귀감돼

교사와 서유원 금강회장이 병사들을 위해 ‘편안한 법당, 쉼터같은 법당’을 만들어 가자고 의기투합한 결실이다.

대부분 종교행사 때는 병사들이 한쪽에서 좋고 있는 것과 달리 호국 장영사 법회에는 좋고 있는 병사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법회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가족 같은 법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초파일에는 모든 장교 사병들이 단결해



호국 장영사 일요일법회에는 평소 100명의 장병들이 참여해 신생활활동에 진력한다.

서 부대 전역에 연등으로 장엄하고 부대장까지 참여하는 자체 연등제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스님들도 이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금산사 주지 원혜 스님은 매년 이들을 금산사로 초청해 미륵심신계 수계법회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남고사 원혜 스님(금산사 총무국장)은 올해 부대 유적현연에는 전 부대 장병들에게 빵과 우유 각 1천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대 관계자들과 지도법사와 지역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은 군 포교의 모범사례라고 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유원 금강회장은 “부대내에서도 불자 장병들의 정진이 지지하다. 복귀기간동안 불자장병은 늘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장병들과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고 따르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험생, 불교미술 보며 마음챙겨

박물관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개최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 및 영상 등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 내용은 문화재 관련 영상 관람 및 박물관 영상관람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의 강의 세부 내용은 ‘남도의 고고학’, ‘고고학과 발굴조사’, ‘세계문화유산과 고인돌’, ‘선사시대의 장신구’, ‘영상강 유역의 용관묘’, ‘전남의 불교미

술’, ‘강진과 고려청자’, ‘다시 태어난 우리 문화재’, ‘박물관과 큐레이터’, 영상 세부 내용은 ‘조선의 화인’-김홍도, 김준근, ‘인사이트 아시아 - 누들로드’, ‘외규장각 의궤’, ‘역사스페셜’, ‘도자기’, ‘아시아’, ‘차마고도’, ‘신창동’ 등 총 18개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또한 한중 수교 20주년과 중국 절강성 박물관과의 자매 교류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천하제일 강남 명품-절강성의 보물>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주제별 강의 및 영상 관람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괘불재·산사음악회 개최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가 10월 27일 중창불사를 회향하며 첫 번째 괘불재를 봉행했다. 이날 괘불재에는 가을비가 내리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괘불재는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의 이운에 이어 고불본 낭독, 육법공양, 통천(通天), 합창단의 음성공양, 만등공양(萬燈供養)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장선원 진법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내소사 괘불 부처님게서 나투신 것은 평등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탐욕과 미움을 돌려 차별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자”고 발원했다.

괘불재에 이어 가을 산사음악회도 열렸다. 올해로 10회 째를 맞는 산사음악회는 서광사 도신 스님을 비롯해 가수 김태근, 안치환, 자전계 탄 풍경, 가야금 병창 박선



우천 중에도 열린 내소사 괘불재

옥,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출연했다.

주지 진학 스님은 “비가 오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대중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소사 괘불재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산사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화합 한마당

5개 불교대학 1000명 참가 줄다리기 등 8개 종목 경기 즐겨

전북 지역 불교대학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불교대학 체육대회가 10월 28일 전주 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화염,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해 배구, 테니스,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2인3각 달리기, 탁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 등 8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혜, 금산사 주지)에서 마련한 이번 체육대회는 올해로 12회째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 포교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운동경기를 하며 지역 불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이 됐다.

원혜 스님은 대회사에서 “각 지역의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전법과 포교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로 우애를 다지는 불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것도 사실”이라며 “각 불교대학 동문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전북불교의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전북지역의 불교대학인들이 앞장서 지역 불교의 원동력이 되고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무주 불교대학이 종합우승, 이리불교대학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각 불교대학별로 장기자랑과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선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지장보살 입상 점안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연)는 11월 1일 4층 큰법당에서 지장보살 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전주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진행된 점안법회는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항상 정진하는 대승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주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한 지장보살 점안법회

청소년 인성교육 템플스테이 실시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 익산사암연합회장)는 10월 27-28일 전북 진안중학교 학생 22명을 초청해 청소년 인성교육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사찰예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와 함께 범종 타종, 발우공양, 사찰음식 강좌 등이 진행됐다. 사찰음식 강좌에서는 음식의 소중함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폐해 등이 강연됐다. 또 다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108 참회를 통해 그동안 학교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자기 반성을 하는 참회의 시간도 열렸다.

지광 스님은 “산사체험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부모님, 선생님, 친구같은 주변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진재오 선생님은



템플스테이에서 참선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사찰에서 기본예법을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였으며 학생들도 스스로 돌아보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정해찬 군은 “108배를 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잠시 공부에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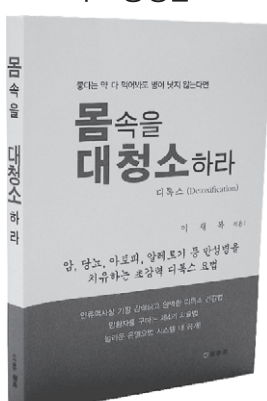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치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항아리인 척추(neck)를 쉽게 푸는 법 수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약어기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뿜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